

##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장마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재해복구사업 현장 점검 실시

- 모개미천 재해복구사업 현장 찾아 신속 집행 및 안전수칙 엄격 준수 당부
- 호우·태풍 등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긴급 집행점검 실시할 예정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6.25(수) 장마철 재해재난 예방 점검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모개미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모개미천은 지난 2022년 중부권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광주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재해복구사업을 2023년 7월 착공했다. 총사업비 103억원(국비 27억원, 지방비 76억원)을 투입하여 해당 하천 일대에 교량, 암거(인공 지하수로), 홍수방호벽 등 수방(水防) 시설을 설치·보강 중이며, 현재 공정률 70% 수준으로 본격 우기철을 앞두고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모개미천 재해복구사업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890 일원) >

- 총사업비: 10,250백만원(국비 2,694백만원, 시·도 지방비 7,556백만원)
- 사업내용: (1~2공구) 교량 15m, 호안정비 121m, 홍수방호벽 74.8m, 암거 83m
- 시행청: 경기도 광주시 / 공사기간: '23.7.27. ~ '26.5.15. (공정률 약 70%)

임 차관은 광주시·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남은 공정 중에서도 집중호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보강해 올해 장마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현장 작업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우기철 어려운 작업 환경 속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호우태풍 등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긴급 집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철저한 재난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                  |     |                             |
|-------|------------------|-----|-----------------------------|
| 기획재정부 | 재정정책국<br>재정정책협력과 | 책임자 | 과 장 김숙진 (044-215-5480)      |
|       |                  | 담당자 | 사무관 윤영준 (yoonyj95@korea.kr) |
|       | 재정관리국<br>재정지출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정석철 (044-215-5330)      |
|       |                  | 담당자 | 사무관 남기인 (nki1213@korea.kr)  |